

韓國의 改新敎와 社會福祉

—교회자원의 복지자원화를 중심으로—

朴 宗 三*

I. 韓國의 社會福祉 課題와 改新敎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과제와 개신교의 복지잠재력에 대한 상호관계는 오늘날 복지사회 구현과, 특별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는 현시점에서 사회복지학계가 진지하게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모형을 논할 때 ‘보완적 자유주의형’, ‘제도적 자유주의형’, ‘한국형 복지사회’ 등 여러가지 개념을 갖고 설명하려고 한다.” 사실 복지국가를 지향함에 있어서 정책지도자나 국민이 갖는 복지관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변천에 따라서 지향하려고 하는 복지모형이 각각 다르게 된다. '8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진국대열로 부상함에 따라서 복지제도가 보완형에서 제도형으로 지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사회복지를 제도형으로 수행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서도 복지자원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서구적 복지 방편을 예방하고 자립정신에 입각한 자립, 그리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복지체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모형은 정부의 주도하에 강력한 민간복지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상승일로에 있는 복지수요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특별히 급

* 崇實大 社會事業學科 敎授

1) 김영모, 「한국사회복지의 체문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6, p.14

속한 민주화의 실현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르는 사회 문제의 급증, 풍요해 지는 사회속에서의 상대적 빈곤의 현상, 그리고 국민의 복지 의식 향상으로 복지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는 이러한 복지욕구에 효율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속에서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개신교의 교회가 민간복지의 자원 체계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본다.

개신교의 신앙과 생활의 핵심은 그 본질상 민간사회복지의 이념적 체계와 행동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제도이다. 사실 우리나라 개신교의 경우 6·25동란 전후에 부닥친 심각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70년대 의원기관이 대부분 철수하고 정부가 대부분의 복지재정을 충당하기 시작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일선에서 이끌고 나온 주체는 역시 개신교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복지기관들과 복지요원들이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사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개신교가 전체의 63.9%로서 높

〈표 1〉 종사시설별 종사자의 종교 (단위: %, 명)

시설종별	종교	없	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기타	무응답	합계(실수)
영	아	10.9	63.5	20.1	4.7		0.7	0.2	100.0	(554)
육	아	7.3	75.6	12.7	3.3	0.1	1.1	0.9	100.0	(2,358)
양로·노인요양		13.5	51.3	19.3	10.4	0.2	4.1	1.2	100.0	(415)
저체제	환	21.2	55.9	14.3	7.2	0.1	1.3	0.3	100.0	(674)
시각장애		16.0	63.5	17.9	1.9		0.6		100.0	(156)
정	박	14.6	70.6	8.6	6.1		0.1	0.5	100.0	(726)
청각·언어		24.8	51.5	17.2	5.5		1.1	0.7	100.0	(276)
심신요양		24.4	55.4	4.3	13.9	0.2	1.9	0.4	100.0	(634)
부랑인		15.0	52.6	15.5	8.9	1.4	6.6	1.6	100.0	(217)
모자보호		8.0	88.5	0.8	1.6	0.8		0.8	100.0	(114)
부녀직보·보호		12.8	68.3	15.0	2.8	0.6		0.6	100.0	(180)
사회복지관		28.5	48.0	18.0	3.9	0.8		0.8	100.0	(129)
기	타	23.6	52.6	12.4	8.0	0.2	2.9	1.0	100.0	(525)
기관·단체		22.1	58.0	12.9	5.1	0.4	1.0	0.4	100.0	(513)
무응답			100.0						100.0	(3)
합계		15.0	63.9	12.9	5.9	0.2	1.4	0.7	100.0	
(실수)		(1,119)	(4,778)	(963)	(442)	(15)	(103)	(55)		(7,475)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보고서」, 1986

〈표 2〉

종사자의 종교별 종사동기

(단위: %, 명)

종교	종사동기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사회복지 전문지식 활용하기 위하여	부모, 친 척유료 등의 경제문제 를 해결하 기 위하여	문제 해결하 기 위하여	신앙심 으로	기 타	무 응 답	합계(실수)
없다	37.8	5.5	15.9	27.4	0.4	10.7	2.2	100.0(1,119)
개신교	42.7	3.8	12.3	13.0	20.6	5.7	2.0	100.0(4,778)
천주교	36.0	5.1	5.4	12.9	32.3	6.6	1.7	100.0(963)
불교	45.2	5.0	15.6	22.6	2.7	5.7	3.2	100.0(442)
천도교	46.7			33.3	13.3	6.7		100.0(15)
기타	32.0	1.0	13.6	14.6	30.1	6.8	1.9	100.0(103)
무응답	32.7	3.6	16.4	16.4	18.2	7.3	5.5	100.0(55)
합계	41.1	4.3	12.2	15.8	18.1	6.6	2.1	100.0
(실수)	(3,069)	(319)	(909)	(1,179)	(1,352)	(492)	(155)	(7,475)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계서

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천주교를 합하면 76.8%에 이르고 있다.²⁾

또한 표 2에서 보듯이 사회복지 종사동기와 종교를 상관시켜 볼 때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이 신앙심으로 종사하게 된 자중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찰할 때 민간복지 자원체계로서의 개신교에 대하여 사회복지학계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전개하므로써 개신교의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학문적 이론정립은 물론 임상적 기술을 개발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본다. 다행히 많은 사회사업(복지)교육기관이나 임상가 및 학자들이 개신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목적은 쉽게 도달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주제발표에서는 이미 열거한 개신교와 사회복지의 관련성을 밝히고, 사회복지자원체계로서의 개신교 현황을 고찰하며, 개신교의 자원체계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간단히 모색하고, 마지막으로 개신교의 사회복지과제와 전망을 규명하려고 한다.

2)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종사자실태조사연구보고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6, p. 167

3) 상계서, p. 173

II. 改新敎의 現況과 福祉資源

사회복지학계에서 개신교에 대하여 연구할 때 일차적인 관심은 복지자원 체계로서의 종교제도이며, 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유형적인 복지자원 체계로 개신교의 교인수(인적자원), 성직자수(지도자 자원), 교회당수(시설자원), 헌금액(재정자원)등이다. 또한 무형적인 복지자원으로 동기자원, 기술자원, 조직자원 등을 연구대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분석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비록 문화공보부나 여러 연구논문들이 간헐적으로 주요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계의 신빙성은 자료의 수집이 종교기관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도 이와같은 자료를 통하여 종교의 동향에 대한 추세를 짐작하게 된다. 다행히도 사상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종교인구조사가 「85년 인구센서스」에 포함되어 있어서 종교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 각 항목에 대하여 개신교의 현황을 고찰해 보겠다.

1. 改新敎의 敎人數(人的資源)

복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인수의 증가추세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한국 개신교의 성장은 팔복할만 하다. 선교 백주년의 개신교 역사를 고찰해 보면 매 10년마다 한국기독교인의 수는 거의 2배로 증가되었다.⁴⁾ 근래에 보고된 문화공보부의 개신교인수들 비교해 보면 이와같은 급성장(1979년 4,868천명에서 1985년 6,489천명으로)을 알 수 있다.

「85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기독교인구는 신구교를 합하여 8백 34만명으로 불교 신자수 8백 6만명을 앞지르고 있다. 이같은 교회 성장의 사회적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①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공신력,” ②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사회불안의 팽배, ② 한국 기독교의 성장 위주의 주체적 노력 등을 들고 있다.”

4)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보고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1982, p. 140

상기한 이유중 ③은 사회문제를 등한시하는 경향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으나 ①과 ②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을 분석연구할 필요가 있다.

2. 聖職者 數(指導者 資源)

우리나라 개신교는 69개 교단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교파를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한국 개신교의 교단현황

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안식교	기타교단	합계
교파	34	4	4	6	2	16	69

출처 : 한국종교편람, 문화공보부

이들 개신교 근소교단에 속한 신학교는 약 45개에 이르며, 많은 전문 종교지도자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새로운 교회를 창설하고 있다. 개신교의 교회가 복지자원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회지도자의 사회사업훈련이 중요하며, 일부 신학교에는 이미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가 있어서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전문어른 및 기술을 갖추어 가고 있다. 특별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성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지도자(목사)의 수는 1979년말 24,035명이었는데, 1983년 말에는 40,717명으로 증가하므로써 그 증가율은 매 10년마다 배로 증가하는 일반 개신교인의 수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다. 특별히 대부분의 신학교 졸업생중 여자는 목사로 안수를 받지 못하므로 이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신교 지도자들을 복지의 인적 자원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다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3. 改新敎의 敎會堂 數(施設資源)

개신교의 개체교회는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

5) 상계서, p.140

를 갖게 된다. 이미 기독교는 한국에서 가장 발전이 빠르고 그 수에서도 제일 많은 “민족의 종교”로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산간지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역사회에 교회가 조직되어 직접, 간접으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근래에 발표된 문화공보부 통계에 따르면 교회당 수는 1979년 17,793개에서 1984년 26,044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個敎會가 지역사회복지센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으며 이들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학계의 학문적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다. 특별히 구미선진국과 같이 지역사회복지센터가 절여된 우리나라에서 개교회는 지역주민의 복지사업을 위한 지역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4. 改新敎의 獻金額(財政資源)

198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 일반 사회는 축적되어가는 교회의 재정적 부와 시설확장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교회헌금의 더 많은 부분을 사회봉사에 투자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과연 한국의 개신교 교회는 재정적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게끔 중요한가?

개신교 재정문제에 대한 연구자료는 매우 희박하며 있는 자료도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 세가지 자료를 갖고 고찰해 보기로 한다. 1982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의 1년 총 헌금액을 약 1조 3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통계는 농촌교회나 도시의 영세교회를 고려하지 않은채 추산된 과장된 수치로서 많은 전문가들의 비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 재정보고는 적어도 막대한 사회재정이 교회재정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⁶⁾

사회복지학계에서도 교회재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1983년 중앙대학교의 나세응은 한국교회의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학위논문을 발표했다. 이미 소개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주로 활용

6) 상계서, p. 83. 이 통계수치는 각 교단별 신자수 헌금액수를 비교하여 1년간 1명당 헌금액을 27,562원으로 하여 교인 약 486만명으로 계산한 것이다.

하였으므로 개신교의 재정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교회의 재정구조가 내부지향적인 성격을 띄우고 있으며, 사회구제비의 빈약성을 지적하고 있다.⁷⁾

YMCA 명예총무인 전택부장로는 1983년 서울시내 43개교회 예산 및 결산서를 수집, 분석한 결과 한국교회의 1년 총헌금액을 4천 3백99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와같은 교회의 헌금수입액은 1979년에는 보사부 예산의 4배가 되고, 정부 총 교육예산의 15.4%나 된다고 보고되었다.⁸⁾

교회의 예산구성은 교역자 생활비가 38.4%, 교회관리비 24.4%, 교육사업비 16.7%, 선교비 15.5%의 순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사회봉사비는 선교비속에 2%~5%정도로 교회공동체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막대한 헌금의 교회재정이 우선적으로 가난한 이웃과 병든 형제 등 사회봉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의식있는 개신교인들은 주장하고 있어 복지자원개발의 가능성을 예시해 준다고 본다.

5. 社會福祉 動機資源

사회복지와 개신교의 관련성은 무엇보다도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강력한 사회복지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개신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안에 흩어져 있는 개신교 교회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씩 출석하여 이웃사랑의 교리(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7~40), 섬김의 교리(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마태복음 20:28), 축복의 수혜자와 시혜자의 교리(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창세기 12:1~3) 등 강력한 공동체의 복지이념과 사회사업가치를 종교적 차원에서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

개신교안에는 이미 「사랑의 실천운동」⁹⁾, 「사랑의 현장갯기운동 훈련지침서」¹⁰⁾ 등 사회사업 전문가들이 종교의 사회복지 자원체계로서의 동기유발

7) 나세웅, 「한국교회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중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8) 중앙일보, 1983. 6. 20.

9) 「사랑의 실천운동」(안내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성광문화사, 1931

(예 사회사업을 해야 하는가?)과 전문사회사업의 기술자원체계(어떻게 사회사업을 해야 하는가?)를 통합하여 개신교내의 종교적 자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인 전문사회사업실천으로 훈련하는 작업을 큰 교단(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동기유발의 종교기관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연구와 개신교와의 면밀한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가 형성되어 활동을 해 오고 있고, 많은 논문과 저서¹¹⁾들이 발표되었으며, 「장애자와 교회」¹²⁾, 「한국기독교사회운동」¹³⁾ 등 특수한 분야에서 개신교와 사회복지에 대한 저서가 발표되는가 하면 「교회와 사회」,¹⁴⁾ 「신학과 사회」 등의 제목으로 학술지와 뉴스레터를 많은 개신교 교단과 교육기관에서 발간하므로써, 기독교 공동체는 물론 지역사회내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려고 하고 있다.

Ⅲ. 改新敎의 社會福祉資源 活性化運動

개신교의 사회사업의 발자취를 고찰해보면 이조 말엽에 전래된 기독교(개신교)는 한국사회에 급격한 변화로 가져왔다.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윤리인 사랑, 박애, 타애정신과 민주정신은 한국의 전통적이며 봉건적인 사회제도를 변화시켰을 뿐만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문제를 갖고 사회문제해결에 참여하려는 정신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무엇보다도 개신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생활화 하려는 노력자체가 사회적 관심에 연결되었으며, 이로써 근대적 의미의 사회사업이 비롯되게 되었다. 그후 일제시대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한국의 사회복지사업에 그 주역을 담당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신교는 1880년대 이래 민족 선교사들의 선교사업에서 교육사업, 의료사업, 아동복지사업, 양로사업, 여성복지사업, 맹·농아사업, 구

10) 「사망의 현장감기운동」(훈민지침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부, 1987

11) 예컨대, 김덕준, 「기독교사회복지, 사상, 역사, 운동」,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 미광문화사, 1985.

12) 민은식의 7인공저, 「장애자와 교회」, 도서출판 풍야, 1987

13) 「신학과 사회」 제 4집, 전주한일신학교, 1987

14) 「교회와 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라사업 등을 들 수 있다.¹⁵⁾

한국 개신교 사회사업의 역사는 대부분이 선교사들에 의해, 또는 몇몇 개신교 선각자들에 의해 사회사업 전반이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개척했던 사회사업 대부분이 교단이나 교회로 계승되지 못하고 관리 또는 사회단체로 계승 이양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해방후 개신교의 개교회는 더욱 발전했고 비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감당했던 기독교 사회사업의 중추적 역할이 약화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 중반기 이래 외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사회사업기관들이 외원의 철회수로 많은 자원난을 겪고 있을 때, 일반 사회와 교회에 대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호소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개신교 교인들과 교회는 지역 사회내의 복지시설과 복지문제에 대하여 자성하게 되었고, 개신교의 각 교단과 큰 개체교회에서 사회사업이론과 기술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개신교에서는 재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 및 시설자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자원을 전문사회사업계로부터 얻을려고 하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사회사업계는 강연, 워크샵, 단기훈련 등의 방법으로 교회사회사업에 대한 이론 및 임상적 훈련을 실시해 왔으나, 전문사회사업계가 개신교의 신앙과 교리, 교회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체계적·심층적 이해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사회사업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전문사회사업학계가 개신교와 어떻게 협력하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사회복지사업의 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프로젝트를 소개하므로써 개신교의 사회복지자원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개신교 장로교교단(통합측)산하의 숭실대학교 사회사업과 교수 4명(어운배, 조성경, 박종삼, 신광섭)은 숭실대학교(당시, 숭전대학교)의 허락을 받고 「교회지도자 전문사회사업 교육프로젝트」를 작성하여 「독일개신교 개발도상국 원조본부」 EZE; die Evangelische Zentralstelle für Entwicklungshilfe, e.v.의 원조를 받아 1983년부터 198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5회에 걸쳐 1,300명의 교

15) 「사랑의 실천운동」,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성광문화사, pp.110~118 참조

회지도자들에게 사회사업훈련을 시켜왔다. 훈련의 목적은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교회의 자원을 지역사회복지자원으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서는 먼저 교회지도자들(목사, 장로, 집사, 신부, 수녀 등)에게 전략적으로 사회복지의식화 작업을 하고, 사회사업전문이론과 기술을 습득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훈련은 3박 4일로 계획되었고, 특수한 개체교회에서 실시할 때는 그 사정상 4일간 밤시간(18:00~22:00)을 활용하는 융통성을 보였다. 복지전문담당 교회지도자, 교회사회사업성공사례발표는 물론 표 4에서 보듯이 교회지도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강의제목과 내용을 조심스럽게 작성하여 훈련시켜 왔다.

〈표 4〉 교회지도자 전문사회사업 교육사업의 교과과정

福祉政策樹立에 대한 理解	부르려트 開發과 實踐技術—社會福祉事業을 中心으로—
對人關係의 技術	社會問題論 敎會指導者의 福祉意識化
敎會와 福祉資源動員	靑少年社會福祉 兒童福祉論, 老人福祉, 婦女福祉
社會事業 方法論	地域社會 問題解決의 方法과 評價技法

「EZE 프로젝트」의 실시개요는 표 5과 같으며, 제 1기부터 제 14기 까지 연수과정 참가자(1,298명) 인적 사항은 표 6과 같다. 이 훈련을 받은 교회나 기관들에 대하여서는 프로젝트개발이나 현장임상자문과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산업지역에 있는 도림교회에 경우 본 프로젝트에서 기술후원을 받고, 교단에서 일부재정지원을 받아 「도림교회지역사회개발교육원」을 교회내에 설립하고 도림동 지역사회를 위해 유아원, 장학사업, 신용협동조합, 노인학교, 주부교실, 시민대학, 도림지역사회학교(야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¹⁶⁾

본 프로젝트는 훈련후 반드시 참여자의 평가를 받게된다. 1차년도('83.3~'85.2)에 실시된 7기간의 참여자의 평가서에서(471명 응답)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본 연수과정을 통해 복회 및 교회사회사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의 질문에 "많은 도움"(88%), "약간 도움"(12%), "그

16) 「도림지역사회개발교육원 사업보고서」, (예장 사회부주최 시민교육 시험사업 평가회 자료) 도림교회지역사회개발원, 1983

〈표 5〉 EZE Project 實施概要

기수	기간	장소	주제	인원	후원
1	83. 7. 4~7	반도유스호스텔	아동복지	29	
2	83.10.17~20	판넨주알 성프 란치스교회	지역사회와 교회사회사업 —청년부지를 중심으로—	5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수도장상연학회
3	83.12.12~15	한국기독교수양 관	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종교자원 활용	3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4	84. 2. 27~3.1	판넨주알 성프 란치스교회	지역사회와 교회사회사업 —청년부지를 중심으로—	69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5	84. 6. 11~14	아카데미하우스	지역사회와 교회사회사업 —청년부지를 중심으로—	49	인천감리교 5개지방 (동·서·남·북 주안)
6	84.10.15~20	소망교회	교회와 지역사회개발 —청년부지를 중심으로—	141	소망교회
7	85. 2. 4~7	승전대학교	교회여성의 사회복지활동	110	장로회 신학대학 여 성 지도자교육원
8	85. 6. 17~20	반도유스호스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영등포 지역을 중심으로—	62	예장총회사회부, 도 립교회
9	85.10.21~25	세문안교회	지역사회와 교회여성 지도자의 역할—청년부지를 중심으로—	92	세문안교회
10	86. 2. 25~3.1	영락교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교회사 명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149	영락교회
11	86. 6. 23~24	광주포남실학교	교회와 지역사회개발 —청년부지를 중심으로—	159	예장전남노회, 전남 사회복지협의회, 전 남사회복지사협회
12	86.12. 1~5	광림교회	사회속에서의 교회사명	134	광림교회
13	87. 4. 20~25	상도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도동지역을 중심으로—	96	상도동지역교회연합 회
14	87. 6. 15~16	전주한일실학교	사회속에서의 교회사 교회사명	120	한일실학교, 예장전 북노회, 전북사회부 지협의회
15	87.11. 9~13	영락교회	오늘날 한국사회속의 교회사명	72	영락교회

〈표 6〉 제 1기~제 14기 연수과정 참가자 인적사항

(단위 : %)

성 별	남자 43, 여자 57
연 령	20대 12, 30대 24, 40대 35, 50대 21, 60대 이상 7
교회지분	목사 12, 전도사 9, 장로 4, 권사 11, 집사 27, 평신도(신교) 19, 신부 0.15, 수 사 0.1, 수녀 7, 평신도(구교) 5, 공무원 3, 사회사업가 2
지 역	서울 62, 인천 6, 경기 6, 충남 0.4, 충북 0.2, 경남 0.2 경북·대구 2, 전남· 광주 12, 전북 10, 제주 0.2, 강원 0.5, 부산 0.6
종 과	신교 84, 구교 13, 기타 3

저 그렇다”(0%)로 답하였고,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교회 사회사업 지식획득”(39%), “교회사회사업 방법론획득”(70%) 등의 응답을 해 왔다.”¹⁷⁾ 이와같은 프로젝트사례를 통하여 볼 때 개신교와 사회복지학계는 교회자원의 사회복지자원활성화를 위한 이론정립과 임상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교회사회사업연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V. 改新敎의 社會福祉 課題와 展望

개신교의 사회복지 전망에 대하여 필자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개신교가 성숙기에 들어서고 있고, 보다 깊은 신학의 정령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종교신념으로 받아 드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비교적 재정적 안정기를 찾고 있고, 비록 교회내에 기부신앙이 아직도 병배하고 있다고 하지만¹⁸⁾ 사회선교,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이 매우 급속도로 고취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교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복지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외부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때 이 경향은 더욱 두드러 지리라 생각된다.

지역사회내의 사회사업에 대한 개신교의 태도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교회와 사회를 이원적으로 파악하여 교회는 전도에만 전력해야 한다는 태도, 둘째는 교회가 성장하고 확립된 후에 참여해야 한다는 태도, 그리고 셋째는 전도 자체를 사회사업과 직결하여 전도의 한 방법으로 보는 태도이다.¹⁹⁾ 초기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세번째 태도를 가졌으나 지나친 복음주의의 영향하에서 첫번째 태도를 전지하게 되었고, 지나친 교세확장과 자본주의 영향하에서 두번째 태도를 도시교회에서 많이 갖게 되었다. 그래도 세번째 태도를 지향하는 교단이나 교회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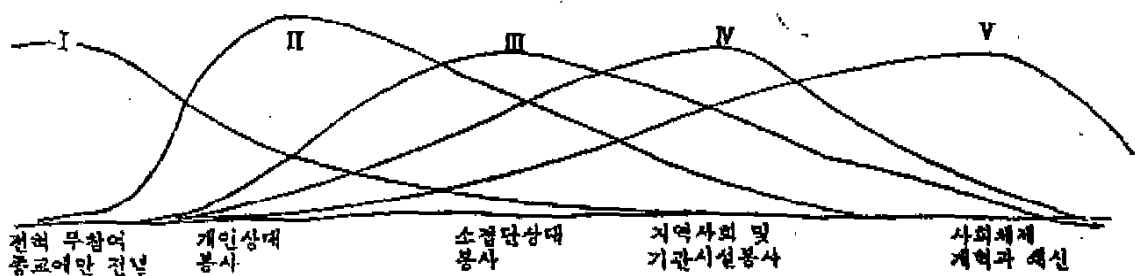
17) FEZE 프로젝트, 제 1, 2, 3차년도 연례보고서, 숭실대학교 교회지도자 사회사업연수과정, 1984

18) 윤태영, 「교회주변의 기부신앙에 대한 성서적 비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년 참고한 것.

19) 사람의 실천운동, p. 120

교회의 자원을 복지자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복지학계의 연구에서 두 개의 중요한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한국에 있는 69개 개신교 교단의 신앙노선이 복지태도나 행동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물론 신학적으로 개인구원이나 사회구원이나의 입장에 따라서 교회가 지역사회복지에 어떻게 관여하게 되느냐의 유형을 예측하게 된다고 본다. 물론 각 개체교인들 중에서도 상이한 복지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개신교인의 사회복지행동유형을 예측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도표를 분석의 준거틀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림 1〉 개신교인의 사회복지행동유형



I의 경우 극단적인 보수교인이나 교단이 될 것이며 II의 경우 보수교인이나 교단(예, 예장-합동, 침례교, 성결교 등), III의 정통적인 온건주의 신학을 지닌 교인이나 교단(예, 예장-통합, 감리교, 무터교 등), 그리고 IV의 경우 진보적 신앙을 지닌 교인이나 교단(예,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의 경우이다. V의 경우에는 대개 급진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지닌 개인이나 기독교 단체(예: 도시산업선교회, 기독교인권위원회 등)등에서 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복지참여행동양태는 사회사업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사업을 계획할 때 그것에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 기술자원 등 어떤 종교자원이든, 그 자원을 출자시키려는 교회나 교인의 신앙노선과 복지문제의 종류를 잘 고려하여 조정하면 모든 종교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개신교의 사회복지과제는 역시 인적·시설적 자원을 지역복지에 동원함과 동시에 강력한 재정자원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교회에 바치는 헌금에 대하여 면세조치를

해주고, 교회는 그 대가로 지역복지에 10% 또는 그 이상을 교회재정에서 투자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이미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개신교가 개체교회주의에 입각하여 연합사업보다는 독자적인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각 지역사회내에는 적어도 3~5개의 개신교가 있는데, 비록 교파가 상이한지라도 지역사회내에서 협력하여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줄 믿는다.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지역사회안에 공동의 종교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함께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